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 유학 외국공무원, 행복도시를 배우다

- 개도국 출신 지역개발 석사학위생 대상 행복도시 건설사업 설명 -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12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지역개발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 공무원 일행이 행복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행복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관람하였다.

몽골,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등 10개국 공무원 15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개발 이론과 실무를 교육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지역개발 선진사례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학습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단은 견학을 마친 뒤, 행복도시에 거주하면서 체감한 정주여건 및 도시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개발도상국에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전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내 유학 중인 외국공무원의 방문을 정례화하여 국제협력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대외협력팀	책임자	팀 장	정현주 (044-200-3360)
		담당자	사무관	이하나 (044-200-3366)



김형렬 행복청장(가운데)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지역개발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 공무원 일행이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관람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